

# 광주 신가동 재개발 조합·시공사 깊어지는 분양가 갈등

### 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증가가 주요인...조합원·일반 분양가 입장차 조합 "시공사 공사 의지 있나"...시공사 "조율 안될땐 도급계약 해지"

광주시 광산구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신가동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책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가 진정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28일까지 질문에 답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1일 시공사 측에 보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현 시공사는 빗고을 드림사업단(컨소시엄)으로, DL이앤씨가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5개 주택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가 '아크로' 아파트를 착공할 의지가 있는지, 조건부라도 실착공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와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적 조치를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분양가 책정 논란은 지난달 4일 조합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조합이 일반 분양가를 평(3.3㎡)당 2450만원으로 책정하자, 시공사는 일반 분양가를 평당 2186만원으로 책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89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조합이 시공사 동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이자 손해배상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 매수, 근린시설-공공청사 시공사 선정 등 문제가 남아있어 즉시 착공이 불가능한데도 조합이 무리하게 '실착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조합 측에 '계약 해지 최고 의 건 공문'을 보내고 한달이 지난 이달 16일부터 현 조합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인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도급계약을 위반해놓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시공사에게 무조건 착공하라고만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며 "도급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5개 사업단 의견을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은 오히려 시공사가 실착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의결 시 즉각 실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공증도 받았는데, 시공사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시공사 측이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한다면서 정작 조합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공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합 내에서는 시공사가 미분양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해 다른 시공사에 사업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병만 신가동 재개발 조합장은 "현 시공사와 최대한 의견 차를 좁히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협의를 시도 중"이라면서도 "협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컨소시엄 내 다른 시공사로 주관사를 변경하거나, 최악의 경우 컨소시엄을 해

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별도의 시공사를 구하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은 경기 위축 등 경제상황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과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시공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서로의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가동 재개발 사업은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대 28만 8058.6㎡ 부지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61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700여세대, 일반분양은 2900여세대 등이다. 조합은 지난 2014년 설립돼 2018년 사업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조합간 갈등, 법적 다툼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우주의 언어-수' 전시 23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우주의 언어-수' 특별전시서 한 어린이가 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실시간으로 보내온 우주 정보를 시각화한 'space 0'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남구 "광주상생체크카드 결제 5% 추가 할인"

광주시 남구에 있는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최대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구는 "올해 연말까지 남구 골목상점가에서 상생체크카드 결제하면 기존 선할인 7%에 더해 추가 할인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

혔다.

이번 할인은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상생정책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골목상점 7곳(무등시장 주변 군분로,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주변, 백운 대성시장, 용대로 상점가, 백운동-봉선동 먹자골목,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 위치한 가맹점 400여곳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캐시백 혜택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상생체크카드 결제하면 다음달 캐시백으로 5%의 추가 할인 적립금이 제공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양념장까지 재사용한 식육식당 한달전 위생점검서 못 잡았다

### 광주 북구 위생모 미착용만 지적

음식 재사용 사실이 드러난 광주시 북구의 유명 식육식당이 한 달 전 위생점검을 받았으나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만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1일 A식육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진행하고 4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식당(일반음식점)은 먹다 남은 기름-양념장을 재활용하고 선짓국 속 선지를 씻어서 다시 손님들에게 내놓는다는 직원 제보 등으로 인해 지난 20일 논란이 됐다.

이에 북구는 21일 직원 5명을 식당으로 보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손님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료 보관실(저온창고) 미청결,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사용 등이 적발됐다.

이에 북구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A

식당 업주를 송치하는 한편 행정명령(영업정지 등)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제는 북구가 한달 전 A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했지만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북구 보건소는 'A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곧바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적발한 내용은 '조리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한 건 뿐이었다.

문제가 된 A식당은 1998년 영업을 시작한 2022년 입주가 바뀌면서 점검에서 2건 이상의 적발이 있었지만, 음식재활용에 대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2023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 2024년에는 위생모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한편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417개 식육취급 일반음식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법원 "박형선 회장 5·18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은 정당"

법원이 범죄전력을 이유로 고(故)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박 회장 측 유족 3명이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회장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징역 10

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수감됐다. 이후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점이 인정돼 2002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박 회장이 2022년 숨지자 유족이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4월 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비대상자로 의결-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박 회장이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이력을 이유로 들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